

일본 연수기

김 성 진/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부설 복십자의원장

1995년 7월 10일 나의 첫 해외 나들이자 일본연수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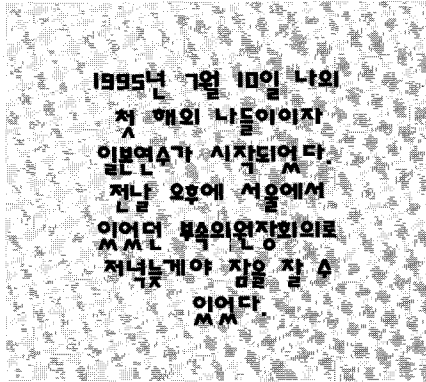
전날 오후에 서울에서 있었던 부속의 원장회의로 저녁늦게야 잠을 잘 수 있었다. 비자관계만 여행사를 통하여 해결하였을 뿐 일본측에 서류며 연락등은 혼자 해왔으며 공항도 처와 아이만이 배웅나왔다.

2시간이 채 안되는 가까운 일본이라선지 여행의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얼마전에 독일로 업무차 떠난 동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눈에 익혔던 국제공항에서 쉽게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비행기는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편으로 기내식을 든 후 입국심사 카드를 작성하니까 바로 일본상공이었다.

어렵지 않게 입국심사와 세관을 통과하고 공항청사에서 한숨 돌리며 주변에 신경을 쓴 시간은 오후 1시, 나의 일본에 대한 첫인상은 낮 설지 않은 외국이었다.

우리와 잘 구분이 가지않는 일본인들



의 외모와 주변에서 쉽게 마주치는 우리나라사람들, 비슷한 구조의 지하철과 건물등은 첫 외국여행이 실감 나지 않았다.

2시에 출발한 특급을 타고 니포리로 가는 중에도 앞뒷 좌석에서 우리 말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무거운 짐외에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세밀한 일본측 안내자료와 영어와 간지라고 부르는 한자로 이루어진 지하철 표시덕분이었다. 일본인에 대해 전혀 준비가 없었던 나로서 공항에서 입국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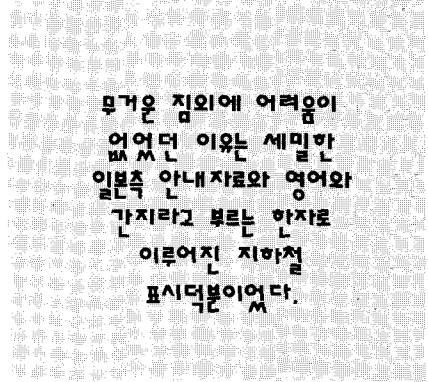
중 나누었던 영어 몇마디외에 질문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기숙사에 도착하여 사감으로부터 방을 배정받고 부엌, 세탁실등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짐을 정돈하고 나니 피곤함이 몰려와 거실서 신문을 보며 쉬는데 이곳 결핵연구소에서 연구중인 탄자니아의 병리사로부터 이곳 기요세시의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한국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쇼핑도 같이 하자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피곤하다며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다른 연수자들은 미리 다른 곳에서 언어연수와 일본문화를 배우고 다음날 이곳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와 네팔의 의사만이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방에는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 번기가 함께 있는 목욕탕이 있었다. 냉장고에는 하루 일찍 도착한 나를 위해 바나나와 홍차, 빵이 다음날의 일정표와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 작은 호의였지만 이곳을 잘 모르는 나에게 정말 요긴하게 저녁과 아침을 해결해 주었다.

월요일 아침 약속시간에 연구소 로비에 도착하여 담당자들과 네팔의사가 도착 할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당시 삼풍백화점붕괴가 그들의 화제로 나를 위로하기에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면서 화제를 그들의 옴진리교 쪽으로 돌리고 이야기하던중 내가 사용한 극단주의자 영어단어에 사무실서 사전을 뒤적이며 너무 진지하게 응답하여 잠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담당 일본측 의사를 만나고 프렘이라는 네팔의



사와 함께 숙소에서 다른 연수원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의 영어실력에 많은 문제점을 알고나서 앞으로 생활에 점차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11시, 드디어 시끌썩한 소리와 함께 이국적 체취를 풍기며 25명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 3주간의 앞선 과정을 통해 이미 친해진 그들 앞에서 내 소개를 하고는 함께 일본측 담당자와 은행과 슈퍼마켓을 들렀다. 점심을 슈퍼마켓에서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모르는 외국인들과 함께 서서 음식을 먹는게 불편하여 다른편으로 가 물건을 구경하는데 일본인 담당자 둘이 모두 쫓아와 돈이 없어서 점심을 안먹는게 아니냐고 물어올때 남에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친절한 일본인을 느꼈다.

다시 그룹에 가까이 가니까 네팔에서 온 의사가 돈이 없으면 빌려주겠다는 호의를 받고 긴장감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중국의 야오라는 남자의사 또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기에 많은 좋은

한 일본인 의사가 크기를 언급하며
 우리 정치에 대해 문길래 장황하게
 설명을 하자 곧바로 흥미를 잃고 차기대통령
 가능성만 묻고 화제를 바꾸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모르며 오로지 대화하기 위한 한가지
 소재였던 거 같다.

친구를 갖을 수 있으리란 예감을 가질 수 있었다.

연수생은 8명의 여자의사와 18명의 남자의사들로 일본, 중국, 마카오, 몽고, 네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쉬,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가나, 탄자니아, 말레위, 모잠비크, 파라과이, 페루, 니카라과아, 온두라스 등 세계지도가 필요할 정도였다.

오후에 입소식이 있었는데 연수생대표로 인도의사가 매우 유창한 영어로 답사를 하여 나를 더욱 영어 고민에 빠지게 했다. 입소식 후 파티가 열렸는데 새로 알게된 외국인들과는 매우 땀나는 시간이었으나 일본측 연수생과 이야기 하던중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부소장 모리 선생님을 뵈고 나의 자리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전임자들인 안선생님, 권선생님, 한분은 WHO에서 일하고 한분은 집안일로 은퇴한 일들을 화제 삼을 수 있었다.

한 일본인 의사가 3김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에 대해 문길래 장황하게 설명을 하자 곧바로 흥미를 잃고 차기대통령 가능성만 묻고 화제를 바꾸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모르며 오로지 대화하기 위한 한가지 소재였던 것 같다.

연수생중 이슬람종교권인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쉬, 인도네시아 의사들은 돼지고기가 금기식품으로 햄, 소세지 등을 일일이 재료를 묻고 술은 일체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힌두교인 인도, 네팔의사는 소고기가 금기음식으로 철저하게 지키며 많은 나라의 의사 역시 생선회에 손이 가지 않아서 잡식성이며 국제적인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인 나는 포식할 수 있었다. 맥주 맛도 우리것 만큼이나 좋아서 즐길 수 있었다. 여러나라 사람들과의 파티인지라 음식테이블 주변을 돌면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나와 일본인의 외모상 구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소고기와 생선회가 가장 비싼 고기였지만 네팔이나 몽고, 인도에서는 염소고기가 비싸다고 한다. 또한 몽고에서는 생선이 하급고기에 지나지 않다고하여 세계는 넓고 식생활은 다양하다고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무사히 첫날을 보내고 본격적인 나의 일본 연수생활이 시작되었다. 卍